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입문 양성
인독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발행처: 충청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8 충청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강재용

제1차 청지기훈련 메시지

교회의 방패와 상급 (창세기 15:1)

그리스도의 교회는 늘 군대와 같은 상징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평화이며, 지상에 있는 교회는 평화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요 14:27; 딤후 2:3) 그리스도의 군사인 교회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비 전리와를 싸워야만 한다. (렘 6:12) 교회가 비 전리와 싸우는 전쟁이 없다면 본질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다. 불의함과 섞여 있는 교회라면 적 그리스도이고 배신자이며 성도들이 교통하는 천성의 교회가 될 수 없다. (고후 6:14-16, 11:4, 13, 14) 진정한 교회가 되려면 교회는 반드시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 (사 52:12)

1. 그리스도의 군대로서의 교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교회 앞에서 항상 앞장 서서 가는 분이시다. (미 5:2; 요 1:1) 예수님은 태초부터 영원토록 언약의 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예비하고 걸으셨다. (마 16:18-19) 예멘 동산에서 쫓겨난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여정은 참으로 험했지만 여호와께서는 항상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창 21:22-23) 잔인한 바로의 땅, 잔혹한 감옥과 아래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셨다. (창 15:12-13, 45:5-7; 시 80:1, 5) 그럼에도 인간들은 항상 그릇된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제도와 규범을 만들었다.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행 4:11-12)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떠한 공격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물론 믿음의 길에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행 4:4-7)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을 마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다. (벧후 3:12-13; 수 6:13-15) 이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제도와 우상과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행 19:17-19)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으로서 선두에서 길을 예비하실 것이다. (행 4:26-28) 그리스도의 교회는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완전하게 안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모두 하나로 모으실 것이다. (고전 3:11, 12, 15)

2.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들이지만 아직은 험한 세상의 여정이 남아 있다. (시 91:3-4) 심한 풍랑에서 헤멜지라도, 타로르는 불가마를 거쳐 가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 (눅 22:31-34) 우리의 미래가 과거의 어떤 흐름과 움직임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의존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우리의 길이 평탄한 대로일지, 낮은 언덕을 오를지, 험한 계곡을 걸을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음성이 있다. (사 40:3-5, 43:19-20)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앞서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히 4:15) 이처럼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요일 5:4-5) 그리스도의 군사인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를 확신하자. 괜히 과거의 죄로 인하여 실망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찾아 보혈로 사함을 받자!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린 천국으로 우리를 초청하신다. 그리스도의 군대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길로 나아가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 (렘 1:16-17) 죄인 중의 과수들이여! 예수께로 나아오십시오!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는 주님만을 믿으며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다음 주일(3월 2일), 제2차 성찬식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제2차 성찬식이 다음 주일 1~5부예배 시에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맞이하는 성찬식인만큼 더욱 자기를 살피어 회개한 뒤 성찬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고전 11:28-29)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은총을 온 몸으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행하는 교회의 예식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적셔지는 은혜로운 성찬식이 되도록 한 주간 온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일예배 시, 제2차 학습 및 세례식 (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갈릴리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2.6.~3.22.)입니다.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길 바라며,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2.6.~3.16.)에 모두 나오시기 바랍니다.

3월 교회 일정

- 2일(주) 제2차 성찬식(1~5부예배 시), 제6차 CMTC훈련(18부예배 후)
- 9일(주) 교사양성부·찬양대원양성부 개강(15:00), 제6차 CMTC훈련(28부예배 후)
- 12일(수) 총회 교회사주변 전도(수요19부예배 후, 역전교회), 수요성경공부 개강(15:00), 정기기도회(수요29부예배 후)
- 15일(토) 총회 교회사주변 전도(14:00, 남천교회)
- 16일(주) 종려주일(가톨릭예배 2~3부)
- 17일(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2월말까지)
- 21일(금) 성경요일, 제3차 성찬식(금요일찬양회 시)
- 23일(일) 부활주일, 특별찬양(18부예배 시)
- 30일(일) 공동의회(49부예배 후)

LORD'S SUPPER

*"Your testimonies also are my delight;
They are my counselors."
(Psalms 119:24)*

In referring to the Lord's Supper, Jesus said,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1 Cor. 11:24-25) If you are going to remember Jesus, then you have to know His testimonies. Are His testimonies a delight to you? As a Christian, are you truly happy with Jesus or do your real joys come from money, health, and success? Before we all partake in today's Communion service, I have some questions for you to answer. Are you satisfied with your current position in the body of Christ? As you sit here listening to me preach, can you honestly confess your great delight in Jesus? Paul stressed, "Wretched man that I am! Who will set me free from the body of this death." (Rom. 7:24) He understood his sinful condition. Do you realize that you have a sinful nature? Do you really know that as a sinner you are hopeless without Jesus? Have you accepted the fact that all worldly good things, like nice cars, pretty houses, successful careers, excellent schools, healthy bodies, etc. are all vanity? Have you seriously finalized your thinking to reflect that all earthly valuable things are indeed futile? What kind of witness are you for God's kingdom? Are earthly things the real cause of your joy or is Jesus?

Today our church is celebrating the Lord's Supper. Jesus is real! He is the King of kings, Lord of lords, and Messiah. He is preparing a special house in heaven for us right now. Before you come to His table, I am asking you real questions that pertain to Psalms 119:24. Are Jesus' testimonies really your counselors, or when you look for help do you go to your friends, computer, or bank? Your heart is a seed and fountain of sin. What kind of hope do you have? Do you have hope with Jesus Christ or with earthly things? Do you experience deep sorrow because of sin? Galatians 3:22 says, "But the Scripture has shut up everyone under sin, so that the promise by faith in Jesus Christ might be given to those who believe." Do you pray with tears? Do you hate all sin or love some? Do you sincerely have a desire to be delivered from sin? Do you pray for such deliverance? Have you taken the time to count, really count, the cost of following Christ or do you just ride on the religious sentiments of the day?

Do you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Jesus wherever He leads you? Can you face ridicule, contempt, and serious opposition? Is your solemn purpose to rely on His gracious aid? Do you love holiness? Do you honestly desire to be more and more conformed to God and His holy law? Do you want to bear the likeness of your Redeemer more and more? Do

you consciously make an effort toward daily prayer? Have you set a time and place for performing this duty? Do you experience delight in it? Another simple question, do you really love the Bible? Do you really find that it brings you closer to the wonderful beauty and excellent glory of God? Is Jesus Christ your Counselor? Have you such love for mankind as was unknown to you before? Do you have peace with every Christian?

My dear friends, there is an appointed time for everything, and there is a time for every event under heaven, "A time to give birth and a time to die; A time to plant and a time to uproot what is planted. A time to kill and a time to heal; A time to tear down and a time to build up. A time to weep and a time to laugh; A time to mourn and a time to dance. A time to throw stones and a time to gather stones; A time to embrace and a time to shun embracing. A time to search and a time to give up as lost; A time to keep and a time to throw away. A time to tear apart and a time to sew together; A time to be silent and a time to speak. A time to love and a time to hate; A time for war and a time for peace." (Eccl. 3:2-8) Do you know these rules? If so, please do not get excited over earthly things because they are worthless. Why do you keep calculating so much of your life into earthly things and not Jesus? Who controls your life? Who leads you? If it is earthly things, then you are being led to despair. Stop relying on earthly things!

Jesus said,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He has provided a beautiful future for you. Ephesians 2:3-6 say, "Among them we too all formerly lived in the lusts of our flesh, indulging the desires of the flesh and of the mind, and were by nature children of wrath, even as the rest. But God, being rich in mercy, because of His great love with which He loved us, even when we were dead in our transgressions, made us alive together with Christ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and raised us up with Him,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 Jesus." Jesus saves you! Do His testimonies give you delight? Is He your real Counselor? Are you happy when you kneel down in front of Him like a baby? Are you willing to take His bread and cup, which He died to give you? As a child of grace, what is your confession of faith? Do you have eternal life, eternal delight? Are you a faithful witness? I hope you come to the Lord's Supper today with delight. I hope all of the Lord's words are your counselors. 🙏

주의 만찬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시편 119:24)



김성관 목사

예수님은 주의 만찬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고전 11:24~25) 여러분이 예수님을 기념하려면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참 기쁨이 물질, 건강, 성공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지금의 위치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설교를 듣고 있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진실로 기뻐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 바울은 죄인인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죄 된 본성이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까? 값 비싼 자동차, 멋진 집, 화려한 경력, 좋은 학벌, 건강한 몸 등과 같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지 있게 여기는 것들이 진실로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진짜’ 인가?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거행합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요, 모든 것의 주가 되시며,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집을 천국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의 만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저는 이 시간 시편 119편 24절 말씀을 통해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유일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친구들이나 컴퓨터, 은행으로부터 도움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죄의 씨앗일 뿐 아니라 원천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것들 중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죄를 전적으로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살이에서는 필요한 것일 수도 있다고 적당히 타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전심으로 갈망하십니까?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시간을 들여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요구되는 비용을 꼼꼼히 계산하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그저 종교적인 감정에 따라 살아 가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어떤 모욕과 멸시와 극심한 박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더욱더 복종

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더욱 닮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정성을 드리고 있습니까?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이 일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따로 정해 놓았습니까?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사랑하시는 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충고자가 되십니까? 이전에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진정 화목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 주님이 정하신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올 때가 있고 옷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쉴 때가 있고 쫓을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전 3:2~8)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재발 세상 것들로 인해 흥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다 무가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은 삶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 대신에 세상의 것들을 계속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과연 누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만일 세상 것들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일을 멈추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3~6은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지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이 과연 여러분의 삶에 참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떡과 잔을 대하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 충고자이십니까?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입니까? 은총의 자녀로서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쁨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주님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지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8. 2. 20.)

천국 열매가 있는가(마태복음 13:18~23)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은 비유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제자들은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질문했다.(마 13:10)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하셨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마 13:11~12) 마가복음 4장에서는 “.....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나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마 4:10~12)고 말씀하셨다. 비록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이었다. 세상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에게 천국은 그다지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활동했던 위대한 선지자들과 의인들도 보지 못했던 천국의 비밀을 ‘찌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마 13:17~18) 동시에 열매도 언급하셨다. 그렇다면 우리의 열매는 무엇인가? 열매는 회개와 관련이 있다. 눈에 보여지는 거룩한 행위나 의식이 열매가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열매를 구하며, 세상의 열매로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나의 신앙의 원인과 결과를 무엇인가? 나의 신앙은 무엇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말씀의 씨가 자라고 있는가? 천국 열매가 있는가?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결과를 맺는가?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되어진 놀라운 일을 다 알고 있었다. 특히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의 메시지와 동방박사의 경배 등 놀라운 일을 직접 경험하였다. 그런데 그 후 12살이 된 예수님을 대하는 마리아의 태도는 변해 있었다. 서른 살 즈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메시시아의 사역이 고난으로 가득할거라는 이사야선지자의 예언보다 당시의 영향력 있는 종교지도자들의 말을 들었다. 심지어 예수님을 향한 종교인들의 비판과 위협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할 정도였다.(마 3:21~22) 이처럼 세상의 가치와 종교관에 빠질 때 복음의 열매는 기대할 수 없다. 예수님은 세상에 기초한 가족관을 깨뜨리셨다.(마 3:34~35)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윤리 그리고 종교관은 복음의 메시지를 금방 사라지게 한다.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

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마 4:4) 또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은혜는 잠시만 유효할 뿐이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마 4:5~6) 결국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기운이 막혀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더러는 가시떨기마에 떨어지려 거기서 가시들을 막으로 걸십하지 못하였고”(마 4:7)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복음의 메시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삼십 배나 육십 배나 백 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마 4:8)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결과를 맺는가?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한다.

좋은 소식이 내려질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좋은 소식은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좋은 소식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다른 악한 자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복음을 빼앗아 간다.(마 13:19) 이것은 좋은 소식이 길 가와 같은 심령에 떨어질 때 생기는 일이다. 좋은 소식이 돌밭과 같은 심령에 떨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복음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로 인하여 넘어지게 된다.(마 13:20~21) 또한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에 내려진 좋은 소식은 세상의 열락과 세물의 유혹에 막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마 13:22) 또한 마더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내려진 좋은 소식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요일 2:15~17)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다.(요 6:40) 하나님의 일도 예수님을 믿는 데 있다.(요 6:29) 세상의 가치를 버려야만 생명의 씨가 자랄 수 있다.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마 13:23)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가득해야 한다. 세상이 아닌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마 10:16,22) 우리는 말씀을 붙들며 좁고 험한 길로 가야 한다.(마 7:13~14) 좋은 나무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나무 꼭, 십자가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맺은 열매가 참 열매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맺은 열매는 회개의 열매이다.(눅 3:8) 좋은 소식이 내려질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회개의 열매가 맺힌다.

‘찌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은 드러났다. 길 가, 돌밭, 가시떨기에 내려진 씨(복음의 메시지, 좋은 소식)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세상의 가치와 종교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아예 천국 자체에 대해서도 무관심하게 만든다. 그저 세상에서 누리는 축복만을 원할 뿐이다. 반면에 좋은 땅에 내려진 씨는 열매를 맺는다. 십자가를 통해서 맺는 회개의 열매이다. **천국 열매는 회개이다.** 메르도의 십수를 반복하지 말자. 마 13:23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나는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죄에서 돌이키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음을 믿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 더욱 고요하게는 자신의 죄성을 매운단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들자. 이때 우리의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우리는 찬송할 것이다. “내 평생에 이 길을 걷느니 곧 공파로 무진과 어렵든지 ~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 내 영혼 평안해.”(찬 413장) 아멘.

마가복음 강해 16

* 매우 길요새귀기되었(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열두 제자를 부르심

(3:13~19)

“또 산에 오르사 저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 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마 3:13~14)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 열두 명을 제자로 세우셨다. 마가는 이 내용에 대하여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열두 제자를 세우는 과정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열두 명이라는 숫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솔로몬 왕 이후 유다지와 중심의 남왕국과 열 개 지파 중심의 북왕국으로 나뉘어졌다. 후에 이스라엘 지파는 이방 국가의 침략으로 모두 흩어졌다. 이처럼 흩어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열두 명의 제자들을 세운 데에 담겨 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중에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함께 열두 제자를 언급하였다.(계 21:12~14) 바울도 열두 제자를 공적으로 인정하였다.(고전 15:5)

예수님이 부르신 열두 제자는 각별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마 22:28~30)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자신과 함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셨다.(마 19:28) 사실 이들은 학식이나 지혜가 출중하지 않았다. 제사장이나 왕족도 아니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다. 본문을 비롯한 성경 여러 곳에 열두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였다.(마 10:2~4 ; 눅 6:14~16 ; 행 1:13)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순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베드로, 야

고보,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특별했다.(마 5:37, 9:2, 14:33) 특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는 보아너게(우피의 아들)라는 별명을 지어 주셨다.(마 3:16~17 ; 눅 9:54)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열두 제자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과 권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다. 절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행하였다.(마 3:14~15)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마 1:15) 예수님의 제자는 자신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이자. 그런데 예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세 명의 제자들이나 다른 제자들은 세상에서 누리고픈 영영에 관심이 많았다.(요 14:22)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자 다투기도 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모 두 흩어졌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라고 순교하였다. 이처럼 전혀 자격이 없던 열두 제자를 부르심과 그들의 사역은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열두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한 넓은 길이다.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은 천사도 흠모할 정도로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하다.(찬 508장)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요 16:33) 십자가를 피하거나 이용하려는 약한 생각과 버려야. “내가 나를 오라니네.”(찬 324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 하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매일 증진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알도록.”(찬 505장) 아멘.

아름답게 이루어질 주님의 뜻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예수님이 어떠한 준비를 해놓으셨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머나먼 선교지로 갔다. 짐과 같은 내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말도 전하 통하지 않는 그곳에서 어떻게 전해야 할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나를 통해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간절한 기도로 준비했다. 주님이 "가라." 하시니 기도로 준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 처음 축회전도를 할 때에는 나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나약함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걸림돌이 될까봐 염려되기도 하였지만, 나는 단지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도구일 뿐 모든 열려있는 슬레 없었다.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아름다웠고, 어눌한 말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평화로운 얼굴로 웃으며 나의 두 손을 잡아 주면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어느 가정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외쪽을 한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자 매우 기뻐하면서 급히 뒷문으로 물러가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져왔다. 이때 나는 이국 땅에서 내 형제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우리의 분향을 소망하는 내 형제를 말이다. 우리는 서로 기뻐하면서 간절한 기도했고, 이후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복음을 들어 보지 못한 순박한 그곳의 영혼들에게는 전도지 한 장 속에 담긴 짧은 말씀도 귀중한 영의 양식이었다. 그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어떠한 열매를 맺을 것인지는 주님만이 아실 것이다. 그들을 위해 더 많은 선교사역이 있어야겠지만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앞으로도 간절히 기도할 것이다. 그들보다 조금 더 먼저 믿게 해 주시고 이 무익한 종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곳에서든 오직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서경자(전사, 18교구)

나의 공로 아닌 십자가의 은혜!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죄인을 2008년 첫 선교팀이라는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선교가 금지되어 있는 국가에 전도지를 가지고 가지 못해 언어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특히 서투른 언어로 인하여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인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세상의 말과 학문과 다르다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언어와 그들의 귀와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심으로 이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여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통할 때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우리들의 부족한 언어로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나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임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안을 두려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자 주님은 다른 팀원을 통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라는 음성을 들려 주셔서 회개하였고, 정말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운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저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의 눈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가 저에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이번 선교팀에서 팀장들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족한 저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해하고 용납해 주신 팀장님을 비롯해, 여든의 연세로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과 겸손으로 본을 보여주시는 집사님과 누구에게든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던 집사님, 항상 복음의 말로 격려하며 기도해 주시고 밝은 모습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우리 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을 풍성히 누렸습니다. 팀의 막내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이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장문구(성도, 3교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7개 팀)

기 간	팀	팀 장
2월 11일(월)~2월 19일(화)	대학부 6팀	남은희
2월 11일(월)~2월 19일(화)	대학부 7팀	박옥현
2월 11일(월)~2월 20일(수)	대학부 4팀	이정화
2월 12일(화)~2월 19일(화)	대학부 5팀	최양숙
2월 14일(목)~2월 21일(목)	대학부 1팀	유동호
2월 14일(목)~2월 22일(금)	대학부 3팀	최계열
2월 15일(금)~2월 22일(금)	대학부 8팀	김보옥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강철형(전도, 전도위원장)

올라타 안에 머물지만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히 13:13)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온전한 명령이 우리에게 내려졌지만 아직도 우리는 세상 즐거움에 머물러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자기를 부린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전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에도 말씀과 기도로 1:1 전도의 목표를 세우고 168개의 전도회가 복음 안에서 매일 둘째 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총력 교회 주변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은 큰 기쁨이 되

고 있습니다. 총현전도대의 매주 수요일 교회주변 전도는 생명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행 8:5,8) 25개 교구와 23개 교회학교에서는 관계 전도(전도대상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에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아직도 전도를 선교를 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면 세상인데 이런 방법으로 전도가 되겠느냐?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이런 불순종의 마음은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제 더이상 속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전도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씨를 뿌리며 나지 아니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려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고전 1:21) 오늘도 주님은 추수할 일꾼을 부르십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아가서 힘써 전하십시오. "사람의 재물이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까? 오직 자기를 부린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열심히 전도하는 삶만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전도에 내일은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를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오늘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 주님이 오셨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던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른다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불쌍히 여겨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속 어딘가에는 '정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늘 따라다녔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나를 충현교회로 인도하였다. 특히 청각장애우를 위한 여배다 부에서의 예배는 은혜로웠다. 나름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하였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와 점점 멀어졌다. 책꽂이에 있는 성경 책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라는 자책만 들었다. 갑자기 다른 교회에도 가 보았지만 충현교회만한 곳은 없었다. 결국 주님은 나를 충현교회로 다시 이끄셨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환영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맞아 주시는 아버지처럼 교회의 모든 분들이 나를 반갑게 맞아 주셨다. 나는 더욱 주님께 매달렸고 예수님은 나를 하나씩 깨뜨리기 시작하셨다. 회개의 복음(마 4:17)이 나를 울렸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마 16:24)이 가슴을 울렸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간다.

구원의 길은 참으로 험하고 낙타가 바늘 끝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다. 이 말씀을 열릴 때마다 아리송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이러한 사실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그로 인해 회개하며 마음 문을 열게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신성철(여배다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금요찬양집회 시간에 맞추어 6살 난 딸아이를 앞세우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을 때였다. 앞집 할머니가 나오셔서 칭찬보다는 비웃는 듯한 어조로 "정말 대단해, 대단해~"라고 하셨다. "더 먼 곳에서도 예배드리고 있는 걸요."라는 나의 말에 할머니의 질타 섞인 말은 계속되었다. "예를 생각해아지, 먼 곳까지 가는데 줄리워 하면 어찌나." 계속되는 할머니의 말씀에 '정말 왜 그러시지?' 하는 서운한 마음까지 생겼다. 마을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교회까지 가는 1시간 반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오늘따라 피곤하더마 두달대는 딸아이의 얼굴을 보니 더 침울해졌다. '주님 어떡해요?' 거들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사람이리던 위임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신앙은 항상 현재가 중요하다. 과거가 아닌 현재!

사실 구역장, 전도회, 교사 등 여러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나는 때때로 사도함없이 일만 할 때가 있다. 또한 갈급함이 아닌 의무감으로 교회에 갈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이 나를 깨뜨려 주었다. 마치 손 마른 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것처럼 말이다. 힘들고 시험을 받을 때마다 말씀은 어김없이 나에게 꿀맛이 되었다. 말씀이 뼈속까지 적힌 유언물을 보고 또 보면서 위로를 받고 회복되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던 중 오늘이 생긴 것이다. '아직도 내가 살아 있어서 화가 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 앞집 할머니께 부침개라도 해서 갖다 드려야겠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도 있잖아.' 예수님, 오늘도 기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요리까?'(요 6:68)

김현애(집사, 11교구)

순수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



주일학교 봉사자를 하면서 매년 언제나 큰 두려움과 설렘으로 차에게 맡겨진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몇 주가 지나고 기도가 계속 되면 아이들이 제 아이인 양 가슴속에 꼭 들어옵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아이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믿음의 싸움은 교사의 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느새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조금씩 큰

트른 믿음의 싸움 땅 밖으로 밀어내곤 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그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들이!

작년 새 친구 초침집회를 기점으로 성준이라는 아이가 고모의 인도로 저희 반에 왔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지 않고 먼 곳에 살지만 고모의 정성과 안내로 성준이는 유아부에 꾸준히 나왔습니다. 성준이는 얌전하고 말이 없어 예배 시간이나 성경공부시간에 차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모의 도움으로 아이를 위한 기도제목들이 구체적으로 생겼고 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1년이 성큼 지나 아이들이 유아부로 올라 왔습니다. 그 뒤 어느 날 밤에 성준이가 배를 움켜쥐고 방바닥을 구르며 복통을 호소하였답니다. 마침 연휴여서 날이 새면 병원에 데려갈 생각이었습니다. 성준이 부모님도 큰 걱정요에 휩싸여 있는데 성준이가 눈물을 똑똑 흘리면서 "하나님, 저 배 아파요. 낫게 하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성준이의 배가 정말 잠깐 같이 나았고, 부모님도 잠깐 놀라 성준이 고모에게 전화로 알렸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으며 나는 성준이의 믿음에 매우 놀랐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의 싸움 확인한 듯 교사로서의 보람과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성준이 고모의 믿음과 충성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린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의 계획 안에서 어린 영혼들의 믿음의 싸움 키워 나갈 것들을 믿으며 기쁨으로 씨 뿌리는 자의 본분을 다하였습다. 교사의 사명을 주신 주님이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실 것을,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임이희(교사, 유아부)

성령님이 주신 기쁨

충현기도원으로 떠나는 마음은 어느 때보다 설렘이던 한편으로는 염려도 컸다. 가장 친한 친구와 동생이 함께하는 수련회였고, 조장으로

서 임하는 첫 수련회였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전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다. 조원들, 팀원들, 친구들과 동생들 그리고 같이 하게 될 많은 대학부 지체들을 위해 기도했다. 기도원에 도착하여 짐을 풀 뒤 말씀을 듣고 찬양하면서 팀원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직 오지 않은 조원들과 팀원들이 마음 한 구석을 허전하게 하였지만 말씀을 나누면서 충만해서 그 시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어느새 내 안에는 기쁨으로 가득 찼다. 주님은 나에게 집중하라는 신조를 주시는 것 같았다. 나는 집회의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환안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분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 말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자유함이 넘쳐났다. 너무 감사했다. 내 안에 한 톨의 소망조차 없었지만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이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된 것이었다.

계속해서 주님은 나에게 참 기쁨을 주셨다. 열심히 참여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주님 안에서 즐거운 나눔의 교제란 이런 것임을 알게 하셨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 내 영혼이 숨쉬고 기뻐하는 것을 느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고 기쁨을 말았다. 그래서 나도 기쁘고 즐거웠다. 여태까지 내 영이 진실된 목상과 찬양을 드리지 못함으로 숨을 쉬지 못했다는 것과 그것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씀목상과 찬양을 매일 숨쉬듯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내 영이 주님을 경배함으로 숨을 쉬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이 영광이 내 삶 속에 영원히 계속되기를 기도드리다. 나는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허 (임대목부)

주신 소망이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이 친구, 동생, 조원들, 팀원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결국 나의 염려는 헛

교회탐방 청년1부 면회회

토요일 오후 5시 30부터 시작되는 십자가의 은혜

어느 주일 오후, 제2교육관 3층 한편에 마련된 청년1부 면회회실을 찾아가셨다. 그곳에 들어서자 강한 향기를 느꼈다. 그 향기의 정체는 무엇일까?

청년부는 어떤 공동체인가?

- 35세 이하의 미혼 청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공동체입니다. (임부부, 회장)
- 청년들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명호, 총무)
-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김소정, 홍보)



바쁜 직장생활로 많이 지쳐있었지만 수련회에 나오신다면 주님이 재워주시는 회복 그리고 청년들이 가져야 할 소망을 잊게 될 것입니다. (오태석, 친구)

▶ 만약 서서 일하는 우리들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기에 말씀과 기도는 데 전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요일, 목요일 저녁에 40~50여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경은)

▶ 청년부 회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청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29일 금요찬양회 후 본당 앞에 대기해 있는 버스를 탑승하면 은혜의 동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전혜선)

면회회가 하는 일?

- 청년부 토요일회가 복음으로 가득하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전혜선, 부회장)
- 수련회를 비롯한 주요행사가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기도를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윤환, 부회장)
- 금요찬양회 후 본당 112호실에서 기도회가 매주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의 기초는 말씀과 무릎입니다. (고영애, 회원관리)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소망은 유혹을 뿌리치고 토요일회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무기

토요일회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면회회 모임은 오후 2시부터입니다. 우선 면회회의 일과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기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집회를 위한 모든 준비가 시작됩니다. (임부부)
- 오후 5시 30분부터 제2교육관 4층 집회실에서 찬양이 시작됩니다. 대략 20여분 정도 찬양 후에 말씀이 선포되고 이후에 찬가와 조별성경공부를 갖습니다. 매우 평범하지만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김경은, 서기)
- 찬양이 정말로 은혜롭습니다. 5시 30분까지 오시면 세상의 노래와 비교할 수 없는 찬양의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누구나 들어도 이해될 수 있을 정도로 쉬우면서 반드시 들어야 할 십자가로 가득해서 정말 좋습니다. (김소정, 홍보)
- 직장인으로서 매우 바쁜 한 주를 보낸 뒤에 토요일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기만 하면 영적 회복을 경험하게 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효화, 회계)
- 찬양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사람들'이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별성경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박준호, 전도)

겨울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 이번 주 29일, 금요찬양회와 후 춘천기도원으로 총합합니다. 다음 날(3월 1일)까지 말씀, 기도 그리고 영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박유진, 봉사)

이유는 복음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박준호)

- 세상의 그 어떤 히터보다 파산한 마음이 있는 청년부 토요일회로 나오세요. (김명호)
- 따뜻한 공기가 맞습니다. 보혈의 따뜻함으로 차갑고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박유진)
-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많이 지치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고 일단 나오세요. 그러면 그 문을 통해서 건강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오태석)
-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매주 토요일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영애)
- 타 부서에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토요일회에 참석하지 않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정이 있겠지만 봉사할 수 있는 영적 힘 그리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임부부)
-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윤환)
- 복합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세상이 아닌 진리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최윤화)
- 지침자들에게 항구같은 토요일 오후시간에 교회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나오시면 안 나오는 것 못 같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만지작거림이 아주 좋습니다. (김소정)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은 한결 같이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우리 교회 청년들도 비슷하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 이들의 아우성은 힘든 상황에서 외치는 말씀과 기도의 향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의 향기로 진동하고 있는 청년부 집회는 모든 청년들에게 열려있다. 청년들이여! 토요일 오후 5시 30분 제2교육관 4층으로 오라! "내가 향한 모든 문을 내게 열라"라는 말씀을 사서 보라!(요 4:29)

(편진국)

내 영혼이 주를 찬양



향기로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양이라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 특권을 누림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 우리에게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어려서부터 악기로 충원교회 오케스트라단원으로 예배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임마누엘 오케스트라에서 주일2부때에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다. 고등학교 때 오케스트라단원으로 섬길 때는 출석율을 나의 믿음의 그래프로서 생각하면서 습관처럼 찬양을 드렸던 기억이 난다. '아름을 통해 성숙한다.'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나에게도 아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층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단련시켜 주셨고, 찬양의 새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셨다.

나는 전교자가 아니기에 플루트라는 악기의 아름다운 음색을 잘 소화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악기로 찬양을 드려다 보면 찬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금음은 음악에 빠져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 악기로 연주하는 것은 쉽지만 악기로 찬양을 드리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 입술로 찬양을 하면 가사 안으로 집중할 수 있지만 악기로 찬양을 하면 지휘자와 악보에 충실해야만 한 곡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두렵기도 하였다.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찬탄해, 머리로는 박자와 음표를 바쁘게, 귀로는 찬양대의 가사와 주변 악기소리에 예민하게, 그리고 눈으로는 악보와 지휘자를 번갈아서 빠르게, 마지막으로 손은 정화하게, 연주가 아닌 참 찬양의 의미를 알게 하시니까 지님은 나를 훈련시키셨다.

"영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쳐." 나는 실력도, 모양도 없지만, 내가 드리는 찬양을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랑이 참 신기했다. 좋은 악기도 뛰어난 실력도 없다. 하지만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리는 연주가 아닌 '마음의 찬양'을 산 제물로 매주 주님께 바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향기로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고혜진(임마누엘 오케스트라)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303	전지아	25 외선부	이영숙(14)	319	이선택	7 장년2부	정봉성(4)
304	김조아	25 외선부	한진주(8)	320	홍동우	8 장년1부	김재호(22)
305	나태사	25 외선부	이현희(16)	321	서유은	20 장년2부	최병환(13)
306	말	25 외선부	김미영(7)	322	최현진	11 청년1부	권인숙(4)
307	황	25 외선부	김미영(4)	323	백서민	21 장년3부	양승배(21)
308	변	25 외선부	이윤정(1)	324	김현희	19 청년1부	전국순(19)
309	장	25 외선부	박진성(15)	325	김정희	20 청년1부	이정태(20)
310	소리	25 외선부	박수현(4)	326	김은성	1 청년1부	오희자(18)
311	서혜은	19 장년2부	신영희(19)	327	유미숙	3 장년1부	유희숙(1)
312	유미진	22 장년2부		328	이현희	3 고등부	유희숙(1)
313	백대현	18 장년4부	김옥림(15)	329	이현희	3 중등2부	유희숙(1)
314	김영호	12 장년2부	박영희(19)	330	홍지아	10 외선부	이진규(8)
315	이현희	13 장년1부	홍현미(1)	331	남형진	19 청년1부	유현숙(4)
316	유혜민	13 초등부	홍은진(1)	332	윤지희	19 청년2부	유현숙(4)
317	유현진	13 초등부	홍은진(1)	334	남형진	19 유자부	유현숙(4)
318	이진규	23 대부부	이진규(23)	335	손은미	13 청년1부	김유정(1)

* 충원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카드를 오시기 바랍니다.*

